



1

분홍 옷의 여자아이 The Girl in Pink

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
그렇
*중서
없다.
온 마

그렇다면 우리가 경밀한
레스의 12가지 모험체
다. 하나의 양초가 빛을
가 빛을 찾으러 다닐 때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capturing a moment of quiet contemplation. On the left, a woman stands with her back to the camera, her head bowed as if in prayer or deep thought. She is dressed in a dark, heavy coat with a thick fur collar. To her right, a large, classical marble sculpture of a seated figure, possibly a saint or deity, is visible. The sculpture is highly detailed, with flowing robes and a serene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a soft-focus outdoor setting, suggesting a quiet garden or a historical site.

저는 진실이 그 중간 어딘가에
다. 해결책은 아마도 인간의 든



다. 저는 초화를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삶은 언제나 움직임입니다. 역시 움직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를 살이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억동성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간이 배제된 체로, 나를 들어가지 않는다면 움직임은 있을까요?

“E”로 불리는 인도의 성전에 적힌 본래의 의미는 인간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있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며 이 움직임 자체가 삶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원색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 무엇도 원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원색의 이상향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매일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길은 우리가 삶의 목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운명은 또 무엇일까요?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나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경감을 약속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을 걸어가는 것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걱정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합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다만 현대 사회의 터무니없는 것들에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경험, 모든 행동, 모든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더 선명해지고, 현재의 것이 되고, 매번 더 강해집니다. 달려가고 회미해져 가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남기 위한 선택지를 줄 뿐입니다. 하지만 매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살아있게 합니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capturing a moment of quiet observation. On the left, a large, dark stone wall rises vertically. A single person sits on a low ledge or chimney pot on top of this wall, their back to the viewer. They are looking down towards the center of the frame. In the middle ground, another person hangs suspended by a rope, their body angled away from the camera. The background is a vast, featureless white space, suggesting a bright sky or overexposure. The overall mood is contemplative and dramatic.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capturing a serene coastal scene. On the left, a massive, dark, and textured rock formation, possibly a sea wall or pier, extends from the foreground into the middle ground. A lone figure stands on the wet, reflective sand at the base of this wall, their silhouette stark against the bright, glistening surface of the ocean. The ocean itself is vast and calm, its surface broken by small, scattered whitecaps that catch the light. The sky above is a uniform, pale grey, suggesting an overcast day or the soft light of dawn or dusk. The overall composition is one of quiet contemplation and the scale of nature.

가끔은 겁 없이 도전할 필요가 있다 Sometimes we need to Dare

가끔 우리는 겁 없이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미지의 것들에 뛰어들어야 하지요. 이스라엘의 오랜 도시인 아코의 높은 벽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절은 사내 사진에는 그 어떠한 조작도 없습니다. 물은 충분히 깊지만 실제로 뛰거나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배위 밀 수면 베ッド에서 있는 자의 모습은 수위가 깔을 것 같은 착각을 더해줍니다. 결국 다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게 하지요.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항상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길에서 우리 모두 한 번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속으로 유키 내서 들어가 볼까?"와 같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미지의 것에 도전하는 것은 반대편에서는 알 수 없는, 한데는 수면 아래에 있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기 위해 바다에 뛰드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상은 거울의 뒷면에서는 보이지 않지요. 만일 우리가 그 거울의 뒷면을 "보게 된다면," 미지의 것들은 더 이상 미지의 것 아니게 될 것입니다. 무지(無知)는 의식이 될 거예요.

지하철 The Tube

현대의 지하철은 다른 기차나 전철, 혹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기운 좋은 유쾌함의 강소라기보다는 외로움과 이별의 장소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컨대 영향상 남미나 인도 아래쪽, 그리고 중국의 경우 여행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유럽에서는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지도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습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특히 그런 규칙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일 때 더더욱 그렇죠. 아이들은 그들의 마음 가는 대로 또 필요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필요는 언제나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점점 더해가는 문열과 이해심 부족 현상을 경험할 때, 또 민주주의 주권적인 의견들에 힘을 실어주는 도구로 전략해బ릴 때, 우리는 연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거나 혹은 재시작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기부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은 보통 그저 우리가 아직 모르는 형제라는 것을, 또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음에도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아이였던 시절에 가졌던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가능하긴 할까요? 가능해요. 뭐냐하면 우리 마음의 나아가기.”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capturing a moment of interaction between a man and a young girl. The man, wearing a dark t-shirt and a baseball cap, is reaching out towards the girl. She is dressed in a traditional, patterned garment. In the background, several other individuals are visible, some standing and some sitting, suggesting a social gathering or a community event. The setting appears to be an indoor space with rustic elements like wooden barrels and a large arched doorway.

제가 갖고 가거나 끌고 온가? To Have or Not to Have?

제가 2014년 2월 인도의 벵갈루루에 있을 때, 저는 꽃을 파는 시장에 있던 두 상인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한 문의 기계에는 팔 꽃이 아무것도 없었고, 다른 한 문의 기계에는 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명은 아무것도 가지고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내가 다음날 시장에 다시 들른다면 그때의 모습도 지금과 똑같을까?” 어쩌면 완전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소유”는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도 어떤 때는 갖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반기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믿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나요? 존재한다는 것은 움직임, 그중에서도 내연의 움직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의식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자역과 자질에 대해 알고 더불어 우리의 단점, 면모의 그림자 역시 알아야 할을 의미합니다. 깨어난 의식은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우리의 감자력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움직임은 순천히 우리 스스로에게, 즉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화에 자신을 가드는 것은 우리를 외부 환경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이 오늘날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이론으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가치를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의 마풀로 신전에서 쓰기 시작하고 느끼고, 또 통제 아래 있을 수 있게 "진정한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의 아주 깊은 부분

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예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 예술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주관적인 특정한 의견을 먼저 죽여야 해요. 어떤 의견도 모두에게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가능합니다.